

70. 요한 2서

요한 2서는 1서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이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므로,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Tip

가현설

가현설(假現說, Docetism)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한 극단적인 교리로서, 예수님은 하느님이기에 인간으로서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영지주의 교리이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탈을 쓰고 왔으므로 사람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교리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받은 것은 환상일 뿐이며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하였다. 요한 2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단죄한다.